

①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전면시행

**-금년 7월부터 전 양축가에 확대 적용
-축산농가 연간 3천5백억원 생산비 절감**

작년 12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포함한 12개 법안과 '97예산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축산업계의 17년래 숙원인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올 7월1일부터 상법상의 축산법인을 포함한 모든 축산농가에 확대 적용되었다.

이로써 전 축산농가는 3,500여억원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로써 지난 7월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전면 수입 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들에게 국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6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개정을 의결함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부업농에서 전업농에까지 확대 적용시키기로 했다.

법인은 상법상의 축산법인 중에서 농업인, 상근 임·직원의 출자지분이 당해 법인의 총출자액의 2/3이상인 법인으로써 축산업 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90/100 이상인 법인과 축산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 등에게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법인으로 축산업 수입이 90/100이상인 법인(가축계열화 사업체) 30대 기업은 제외되며, 농수축협 조합과 중앙회까지 확대적용 되었다.

② 돼지고기 수입 전면개방

**-금년 7월부터 시행
-관세 97년 33.4%에서 2004년 25%로 낮아져**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및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따라 금년 7월부터 냉동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농축산물 73개 품목 수입이 완전 자유화 되었다.

금년 7월 이후부터 냉동돼지고기의 양허관세는 25%에서 33.4%로 인상되었으며, 수입은 완전 자유화 되었다. 또한 2004년까지 양허관세가 매년 하향조정되어 2004년 이후의 관세는 다시 25%로 낮아진다.

국내 돼지고기 시장의 완전개방으로 인하여 수급조절 기능 등 돼지고기 정책에 대한 정부의 직접개입이 배제됨에 따라 국내 양돈 농가들은 방역관리, 생산성 향상, 위생적인 돼지생산 등 그동안 무수하게 강조되어 오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겠다.

③ 대만에 돼지 구제역 발생

- 양돈관련산업 피해액 40조원
- 감염돼지 400여만두 살처분

지난 3월 14일 대만 도원현과 신죽현에 위치한 20개 양돈장에서 돼지구제역(Foot & Disease)이 발생함에 따라 대만의 돼지고기 수출입이 전면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연간 지육기준 36만2천톤의 돼지고기를 수출하고 있었던 대만 양돈산업에 비상이 걸린 한편, 대만에서 돼지고기를 다량으로 수입하고 있는 일본이 기존에 수입해왔던 대만산 돼지고기를 반송 및 폐기 처분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돼지구제역의 국내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20일자로 대만산 우제류 동물(소, 돼지, 사슴, 양 등)과 그 생산물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취하는 한편, 국립동물검역소와 수의과학연구소로 하여금 대만산 돼지고기 등에 대한 수입정밀 검역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대외 수출 의존도가 약 60%에 이르는 대만의 양돈산업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다.

대만의 돼지고기 수출 물량은 지난해 일본이 수입한 정육 기준 65만3천톤의 물량중 26만6천톤으로 이는 돼지 약 600만두, 18억달러(한화 약 1조6천억원)에 달했는데, 이 물량이 부족함에 따라 덴마크, 미국, 캐나다 등의 일본시장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④ 축산물 가공업무 농림부 일원화 실현

- 11월 18일 축산물 위생처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내년 6월부터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법령 바꿔 시행

축산인의 오랜 염원인 축산물 가공업무 일원화가 마침내 타결되었다. 국회는 지난 11월 18일 본회의를 열고 축산물 가공업무를 농림부에서 관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축산물 위생처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2월 28일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농림부로의 일원화를 결정한 이후 꾸준히 추진되어오다 지난 11월 18일부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이로써 축산인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축산물 가공업무 농림부 일원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생산부터 도축, 가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 소비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85년 7월 축산물 가공 관리 업무가 보건사회부로 이관된 이후 본회를 비롯 농민단체에서는 축산물 가공 관리 업무를 농림부로 재이관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었다. 그러나 보건 복지부의 완강한 반대로 축산물 위생처리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제출되지 못하고 계속 지연되었으며, 지난 7월 11일에는 한국낙농육우협회를 대표단체로 하여 본회를 비롯 농축산관련 231개 단체와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등 5개 소비자 단체 등 236개 농민단체가 155명의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 입법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농림해양수산위는 11월 10일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⑤ 축산폐수 처리시설 기준 대폭 강화

- 신고대상 돈사규모 250㎡에서 140㎡이상으로
- 저장액비 살포면적은 1두당 최고 700평에서 175평으로 완화

지난 8월11일 공포하고, 9월 8일 시행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에 따르면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신고대상 규모가 돈사면적 140㎡이상, 1,000㎡미만으로 확정되었다. 이에따라 개정전 규정 250㎡이상, 1,000㎡미만보다 강화되었다. 또한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돈사면적 250㎡이상, 500㎡미만에서 140㎡이상, 500㎡미만으로 강화되었다. 간이정화조 설치대상 면적은 70㎡이상, 250㎡미만에서 50㎡이상, 140㎡미만으로 강화되었다. 허가대상면적은 1,000㎡이상으로 개정전과 변동이 없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령 공포에 따라 신고대상 양돈농가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1998년 9월 7일까지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며, 1999년 12월 31일까지 간이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한편 저장액비화 방법에 의한 액비살포하는 면적은 대폭 완화되었다. 지난 9월18일 환경부가 고시한 "액비살포면적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에 의하면 양돈분뇨 저장액비는 초지에 살포할 경우 기존 1,100㎡이상(333평/1두)에서 470㎡이상(142평/1두)으로 대폭 완화됐다.

⑥ 돼지고기 수출 가공업체 부도 잇따라

- 태강산업, (주)부광, 대성종합식품 등 부도
- 경남지역 양돈농가 피해 심각

태강산업이 지난해 서울 3개 도매시장의 하나인 유창식품을 인수하고, 김해 주촌면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쏟은 자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7월 31일 1차 부도를 맞는데 이어, 8월 14일에는 최종 부도처리 되었다. 이 여파로 돼지 임대축 계약을 맺고 있는 (주)부광도 영향을 받아 부도를 내게 되었다.

한편, 국내 돼지고기 중견수출업체인 (주)대성종합식품도 지난 9월 3일 최종 부도처리 되었다. 부산에 위치한 (주)대성종합식품은 지난 96년에 1,071톤, 5백72만7천불어치의 돼지고기를 수출했으며, 올해는 지난 7월까지 680톤, 3백72만1천불어치를 수출한 업체이다. 대성종합식품이 이같이 부도처리 된 것은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공사비 충당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부광과 (주)대성종합식품의 부도여파로 부산 경남지역의 하반기 돼지값이 평시의 시세보다 1만원 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수출업체 부도는 바로 양돈농가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⑦ 돼지 사육두수 사상 첫 7백만두 돌파

-사육가구수는 전분기 대비 1천농가 준 2만8천농가

돼지 사육두수가 처음으로 7백만두를 돌파했다. 농림부가 발표한 3/4분기 가축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 9월 1일 현재 전국의 돼지 사육두수는 전분기 대비 7.2%(48만3천두) 증가한 수치다. 사육가구수는 전분기 대비 1천농가가 줄어든 2만8천농가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20%(7천농가)가 줄어든 것으로 일년동안 양돈업계를 떠난 농가가 7천농가에 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구당 사육두수는 256.5두로 전분기 대비 12.9%나 증가해 양돈농가의 전업화·규모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돼지 사육두수가 3개월 동안에 7.2%(47만5천두)나 증가한 원인을 대일 수출량 확대와 부가세 영세율 확대 적용에 따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러한 이유로 사육두수가 8% 이상 증가한 2개월령에서 6개월 미만의 돼지가 본격 출하되는 10월 이후의 하반기 돼지가격이 크게 하락하였다.

⑧ 가축공동방역사업단 운영

-양돈분야 공동방역사업단 41개소 선정

지난 3월 6일 축협중앙회 회의실에서 공동방역 사업실시단 운영요령 세부 설명회를 열고 지역 특성에 맞게 생산자 단체의 시·군지부에 축종별 사업단을 두는 내용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설명한 후 지난 5월 27일 36개소의 1차 공동방역사업단을 선정한 이후 지난 10월에 17개를 추가로 선정하였다.

이는 최근 대만의 구제역, 화란의 돼지콜레라 발생 등 질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자국내 양돈 산업을 크게 위협하게 됨으로, 사전에 질병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이중 돼지공동방역사업단이 41개소이며, 닭 11개소, 소 1개소 등 총 53개의 가축공동방역사업단이 구성되어 사업을 하고 있다.

농림부는 이들 사업단에 개소당 사업비의 70%인 4천2백35만원씩 모두 15억2천4백60만원을 보조하였는데, 보조금은 예방약, 냉장고와 방역차량, 휴대용 냉장박스, 연막분무기, 고압세척소독기, 고압멸균기, 병성감정기구세트, 철제자동주사기, 의료기구소독기, 소독기, 멸균기, 주사기, 컴퓨터와 프린터를 구입하는데 지원되었다.

본회에서는 지난 5월 27일 1차로 홍성지부, 당진지부, 예산지부, 아산지부, 전주완주지부, 고성지부, 거창지부, 합천지부, 울산지부가 선정되었으며, 지난 10월 2차로 안성지부, 여주지부, 고창지부, 양산지부, 하동지회가 추가로 선정되어 본회의 지부중에서 공동방역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지부는 14개소가 되었다.

9 전국에서 돼지설사병(PED, TGE) 피해 극심

-감염자돈 대량 폐사로 돼지가격 상승하기도

연초 한겨울에 돼지 설사병이 전국적으로 발생, 어린돼지가 폐사 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현장 수의사와 양돈장 관계자, 가축병성감정기관 등에 따르면 최근 경기, 충남, 전남북, 경남지역 등 전국에서 돼지 전염성위장염(TGE)과 돼지 돼지 유행성 설사병(PED)이 발생하여 어린돼지가 설사 증세로 폐사되는 등 피해가 막심했다는 것이다. 특히 돼지 설사병은 작은 농장은 물론, 비교적 농장 위생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진 대규모 농장에서도 많이 발생했으며, 젓먹이돼지의 경우에 감염될 경우 대부분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파로 이들 자돈이 출하되는 시점이었던 5~7월의 돼지가격이 크게 오르기도 했다.

환절기에는 돼지설사병 피해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여 양돈농가에서는 전염병 발생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지난 2월 19일 본회를 비롯해 축협중앙회 등 생산자 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양돈 생산농가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어미돼지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 및 축사소독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또한 농림부는 돼지 설사병 발생과 관련, 지난 2월 26일 수의과학연구소 회의실에서 양돈 방역 책임자와 양돈 밀집지역 시군 농촌지도소 축산담당지도사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돼지 설사병에 대한 긴급 방역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10 돼지콜레라, 유럽 전역으로 전파

-네덜란드 돼지 생산량 30% 감소

지난 5월 25일자 국제 수역사무국(OIE) 발표에 의하면, 지난 1년동안 네덜란드 외에 스페인, 이태리, 독일 등 12개 나라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했으며, 아이보리 코스트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은 돼지콜레라를 박멸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살처분 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유럽내에서 수백만 마리가 살처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돼지고기 주요 수출국인 네덜란드에서는 지난 2월 돼지콜레라가 발생된 이후 총 4백만~6백만마리에 이르는 돼지가 도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네덜란드의 돼지 생산량은 30% 가량 감소되었으며, 지난 6월 3일까지 돼지콜레라로 입은 피해액은 총 7억 길더(한화 약 3,15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파로 인해 인근 덴마크에서는 돼지 지육기준 가격이 지난 5월 중순 kg당 14.4크로네(한화 약 1,918원)로 전년동기보다 40%난 상승하는 등 일시적인 폭등도 있었다. 또한 지난 6월 벨기에의 하셀트 지방에서도 돼지콜레라가 발생해 인근지역의 돼지 1만6천여 마리가 도살되었다. **養豚**